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5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26일 (음력 1월 11일) 월요일

민주·민평·바른미래당, 악재들로 '뒤숭숭'

6월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정태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예기치 못한 악재들로 각기 다른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당원명부 유출 사건과 대통령 격려 발언 등으로 당내 후보자 간 내전(內戰)이 벌어져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상밖 낮은 지지율에 후보 기피·기근 현상까지 겹쳐 고민이 깊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내 광주시장 후보들 간의 과열 경쟁이 검·경 고발 등 법적대응으로까지 이어지자 "집안 싸움으로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비공개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전략공천 카드를 논의했다.

당내 경선에 뛰어난 7명을 모두 배제하고 제3의 인물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안과 당원명부 유출과 대통령 격려 발언으로 분란을 일으킨 일부 주지들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후보들로부터 경선을 치르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간 분란보다는 원내 1당을 유지하기 위한 '우회적 압박'으로 전략공천 카드가 흘러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이던 이계호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강령 의지를 굽히지 않자 이 의원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민주, 광주시장·전남지사 전략공천 광주 조기경선설

민평·바른미래당, 5% 지지율에 후보 기근 현상까지

등 광역단체장 전략공천은 논의된 바 없다"고 급히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섰다. 판 장은 민면치 않다.

"지난 총선 참패를 망각한 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또다시 오만에 빠졌다" "폐단을 잘 알면서도 전략공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건 확신이 부족해서다. "기초 단체장과 국회의원 재선거에 이어 광역단체장 전략공천설이 나온다"는 비판론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역대 선거에서 일방적인 전략공천으로 당이 분열되고 민심이 등돌리는 부작용을 여러차례 겪은 바 있어 리스크가 큰 전략공천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지 여부에도 지역 정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략공천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해선 지 민주당 일각에선 광주시장 조기경선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고발과 수사가 이어지고 전직 시장 핵심당직자와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이용섭 예비후보의 일자리 위 부위원장직 조기 사퇴 논란과 대통령 격려 발언을 둘러싼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자 당 차원에서 교통정리나 평화유

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거 일정과 경선 로드맵 등을 감안할 때 조기경선까지는 짧아도 30~4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입지자 '풍년'에도 과유불급의 우려를 낳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에서 갈라선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지지율이 고민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은 나뉘어 5~6%로, 민주당(69%)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정의당(7%)에도 밀렸다. 정당 시너지와 '호남에서 바람'이라는 기대와 달리 '별생정치'와 '호남의 외면'으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낮은 지지율은 고스란히 후보난(難)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선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선거판에서 기운대로 기운 운동장에서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는 자괴감에서다. 한 입지자는 "민주당 공천= 곧 당선이라는 새로운 등식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당에 나선의 불구덩이로 누가 선뜻 뛰어들겠느냐"

고 반문했다.

실제, 광주시장 선거전의 경우 7명이 뛰어난 민주당과 달리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까지 링에 오른 선수가 없다. 일찌감치 후보자를 결정하고, 유권자 신고식까지 마친 정의당, 민중당과도 비교된다.

민평당의 경우 당내 최다선(6선) 천정배(서구) 의원과 3선의 장병완(동남) 의원이 나란히 불출마로 마음을 굳힌 가운데 초선인 김경진(북) 의원, 최경환(북) 의원이 등판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 차원에서도 14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요건(최소 20석)을 채우지 못해 협의 차출이나 지방적 출전에 부정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주승용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으나, 광주시장 선거전은 난망이다. 지지율도 낮고 국민의당 분당 후 반안(반안철수) 정서마저 커진 가운데 4선의 박주선(동남) 의원과 김동철(광산) 의원이 나란히 당 공동대표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출전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녹록치 않은 상황임에도, 두 당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경환 민평당 광주시장위원장은 "민주당과의 1대 1 구도가 펼쳐지면 5개 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중 50%는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했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시장위원장은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를 당선시킬 작으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추성 기자



발목잡힌 전직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땅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도곡동 명을 지형 재산으로 갖고 있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 특히 도곡동 땅 소유 논란에서 시작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자동차 부품업체 디스(ADAS), 두 자문회사 B&K 의혹까지 벌어 나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한센인 자활촌 한인마을과 관련된 이권 청탁을 받고 직권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측근 데이비드 윌슨과 한인마을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한센인 자활촌인 한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자를 총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실제로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신봉우 · 자료 사진 = 뉴시스



광주·전남 상생 보금자리, 제2남도학숙 개관

총 604명 수용...내일 개관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제2남도학숙이 문을 연다.

광주와 전남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에서 운집한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학생·학부모, 향우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남도학숙 개관식을 연다.

시·도는 1994년 개관한 제1남도학숙(동작관)이 학생 수요를 충족하는데 부족한 상황에서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동협력 사업으로 2014년 10월부터 제2남도학숙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제2남도학숙은 2016년 7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1만8717㎡)로 총 604명

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다. 다목적실 구내식당, 독서실, 세미나실, 헬스장, 노트북실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날 개관식은 집주인인 학생들이 손님을 초대해 소개하는 '집들이' 콘셉트로 국악공연과 사회 등을 직접 진행하며, 남도학숙을 거쳐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도 참여해 제2남도학숙 개관을 축하할 계획이다.

1기(1994년 재사) 졸업생인 아버지 김문재씨와 2기(2017년 재사) 입학생인 아들 김규근씨가 1만5000여 명의 졸업생을 대신해 후배 세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며 운집한 시장과 이재영 권한대행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윤 시장과 이 권한대행은 상생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한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남도학숙이 광주·전남 학생들의 요람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청년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이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남도학숙은 식비를 포함, 월 16만

원으로 이용료가 저렴하고 장학제도, 취업멘토링, 해외봉사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며 향토 기숙사의 이름에 걸맞게 지역 출신 선후배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 역할을 넓혀 가고 있다.

서은홍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함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